



즉시 배포용: 2023년 5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웨스턴 뉴욕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자 강조**

**회계연도 2024 예산에서 2026년까지 업스테이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조정**

**육의 비상 임차 지원 프로그램에 3억 9,100만 달러를 추가하여 공공 주택 주민과 연방 구역 8 바우처 수령자 등 수천 명의 임차인과 가족 지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크레딧을 4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해 약 63만 명의 아동을 추가로 지원**

**노동 보호 조치 및 노동계약 준수를 보장하는 선도적인 기후 조치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근로자를 지원하고 웨스턴 뉴욕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예산에는 2024년 업스테이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 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과 2026년 각각 0.50 달러씩 인상한 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연동하는 조치를 비롯해, 비상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확대를 통한 공공 주택 주민 및 Section 8 바우처 수령자 수천 명 지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세금 공제(Empire State Child Credit) 개선을 통한 만 4세 이하 아동 지원, 뉴욕의 친환경 경제 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조직노동계 지도부와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Hochul 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은 제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산에서 역사적인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여기 웨스턴 뉴욕과 뉴욕 전역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한편, 계속 늘어나는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욕의 가족들이 일자리, 보육 등 번성에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는 올해만하더라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포드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연령대 뉴욕 시민의 50%가 기본적인 욕구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틴계, 흑인, 이민자인 뉴욕 시민들과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늘어난 생활비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혁신적인 조치를 구현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근로자를 지원하고 뉴욕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에 포함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와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주 최저 임금을 2026년까지 업스테이트에서 시간당 16 달러, 다운스테이트에서 17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최저임금을 가장 우수한 인플레이션 기준인 북동부 지역 CPI-W의 3년 이동평균에 연동시켜 뉴욕 시민들의 급여가 생활비 상승분 반영
- 공공 주택 거주자와 연방 구역 8 바우처 수혜자를 포함한 추가 임차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3억 9,100만 달러
- 유색 인종 및 주택 소유자 고민이 많은 저소득 주택 소유자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주 전역의 10개 지역 사회에서 주택 수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안정화 기금에 5,000만 달러
- 4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동 공제 확대하여 약 630,000명의 추가 아동을 포함하여 525,000명 이상의 중저소득 납세자에게 총 1억 7,9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
- 중등교육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활동과 병행해야 하는 교육 요건을 없애므로 공공지원 수혜자의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 증대
-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의 노동력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을 허물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입사 후 6개월 동안 수급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무시함으로써 공적 지원 "급여 절벽" 완화
- 16~24세 미취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의 청년들에게 교육 지원 및 일자리 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이 일자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일자리 커넥터(Youth Jobs Connector) 프로그램
- 탈탄소화, 적정가격 상한 및 투자 프로그램 추진, 재생 에너지 개발 등 선도적인 기후 조치에 노동 보호 및 노동계약 보호 포함
- 전기화와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높은 전기요금을 겪는 뉴욕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하기 위해 4억 달러

**Laborers' Local 210 대표인 Sam Capit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은 뉴욕의 근로자를 위한 좋은 조치이며, 삶의 수준을 높이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해 Hochul 주지사보다 더욱 확실한 지원을 한 역사는 뉴욕주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지사를 비롯한 핵심 이해관계자와 이번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